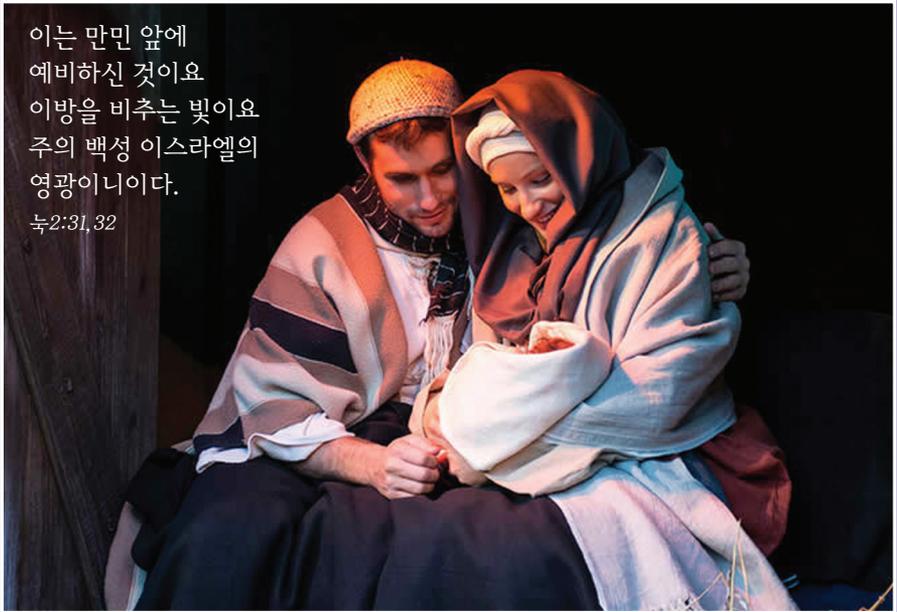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3 Number 12 **12** 2015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눅2:3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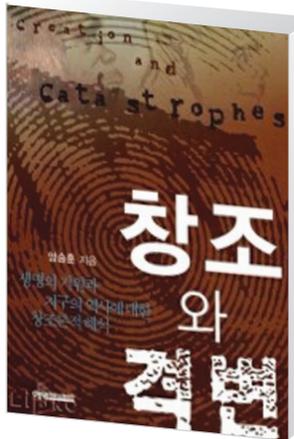


유신론적 진화론 5

다중 격변론

창조와 멸종이 반복될 때마다 격변이 발생(1):
과학적 문제점

최 근에 한국 기독교계에 어떤 때보다도 유신론적 진화론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 진화론이 등장한 이래로 유럽과 미국을 건너 드디어 한국에서도 일고있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캐나다 VIEW 원장으로 있는 양승훈 교수의 '다중격변론'이다(창조와 격변, 예영, 2006). 다중격변론은 한마디로 앞서 언급한 점진적 창조론에 격변설을 첨가한 이론이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와 멸종을 수십 억 년 동안 반복하다가 아담을 창조하였는데, 멸종이 일어날 때마다 홍수 심판과 같은 격변이 일어났다는 이론이다.



그 내용뿐 아니라 이론의 발생한 동기도 점진적 창조론과 유사하다. 진화론자들이 1980년대에 전이 화석이 부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종류에서 종류로 변하는 대진화에 대한 증거의 부재가 나오자 하나님께서 수십 억년에 걸쳐 진화의 순서대로 창조(!)하였다는 점진적 창조론이 등장했다. 즉 진화론자 스스로 인정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빅뱅, 수십억 년의 지질시대표, 동위원소 방법 등 여전히 버리지 않은 진화론적인 것들은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이다.

한편 다중격변론은 최근의 지질학계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이론이다. 지질학은 19세기 초에 지층이나 산들과 같은 대상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퇴적되고 침식되는 자연 과정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여기는 '동일과정설'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 동일과정설은 20세기에 들어서기 전에 지질학의 커다란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때부터 지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오랜 역사를 겪은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1872년에 화석들을 진화순서로 모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식의 지질시대표가 기본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학계 안에서 동일과정설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격변에 의해 지층 형성이 관찰되었고, 산과 골짜기 역시 격변적 침식 과정으로 형성되었다는 격변론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다중격변론은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등장한 것이다. 점진적 창조론과 마찬가지로 진화론자들이 자세를 바꾼 부분만 바꾼 것이다. 한편 진화론자들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수십억 년의 지질시대표는 여전히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 격변의 원인으로 외계에서 날라온 운석을 꼽았다.

과학적으로 보자면 양 교수가 주장하는 다중격변론은 점진적 창조론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도 유사하다. 무엇보다도 지구 상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과학자 누구도 관찰한 적이 없는 지질시대표에 대한 신뢰 부분은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양 교수는 책에서 지구상에 여러 번의 격변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전지구적으로 단 한번의 격변이 있었다고 하는 성경의 홍수 심판을 약화시키려는 태도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랜드캐년과 인근 캐년들의 형성... 만일 노아 홍수로만 현재의 지층형성을 설명하려면 홍수가 있었던 10여 개월 동안

쉬지 않고 시간당 평균 2-3m의 속도로 지층이 퇴적되었다고 가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상상하기 어렵다."(p. 485)는 식이다. 그러나 1980년에 폭발한 세인트헬렌산에서 흘러내린 저탁류가 수시간만에 7.5m의 지층을 만들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코로 숨쉬게 하는 생물을 파괴시킨 전 지구적인 대격변이 한 개의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지역적인 지층 형성만도 못



하게 취급되어야 할까? 저자는 자신의 이론을 합당화시키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홍수 심판의 규모도 약화시키고, 성경적 관점으로 지층을 보고있는 사람들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운석에 대한 논리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홍수심판으로는 그런 두터운 지층의 형성이 불가능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운석으로는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이 자신이 상상한 운석보다 못하단 것인가? 그랜드캐년을 보더라도 지층이 아주 평평하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층들은 운석 충돌로 형성될 수 있는 모양도 아니지만, 만약 양 교수의 주장대로 지층이 운석충돌에 의해 수백만 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만들어졌다면 그 격변과 격변 사이에 산이나 강을 보여주는 흔적이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어떤 경우도 운석에 의해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지층이 형성된 예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지질학적인 증거들을 볼 때 지층들을 포함하여 현재 지구상의 여러 격변의 증거들을 모두 전 지구적인 일회적 홍수만으로 설명하는 것도 어색하다(p. 476)."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한가지 가능성은 다중격변 모델이다(p. 479)."라고 말한다. 그러나 양 교수가 성경에 기록된 전지구적인 단 한번

의 격변인 홍수 심판이 어색한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증거 때문이 아니라, 수십억 년의 지질시대표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번의 홍수심판에 의한 격변이 결코 어색하지도 않고, 양 교수가 갖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할 필요도 없으며 진화론과 타협할 필요도 없다.

양 교수는 “지구 절대연대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은 이 논쟁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p. 470) 라고 했듯이 오랜 지구 나이를 지지하기 위해 방사성 연대측정을 옹호하는 내용을 여러 페이지에 할애했다. 그러나 양 교수의 이 책과 주장은 저자 단독으로 쓰여진 만큼 많은 부분에서 비전문가적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양 교수는 탄소연대측정방법을 설명하며 “정확한 보고는 없지만 대체로 (그 오차가) 2%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 중요한 결과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원인이 밝혀져 있다.”(p. 391) 고 말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참고문헌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다(실제로 저자의 책에는 참고문헌이 없다). 또한 스스로 정확한 보고는 없다고 하면서 2%란 숫자는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것일까? 그리고 탄소 측정의 결과만 갖고 그 수치가 정확한지 부정확한지 그 원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원인을 밝히는 것은 창조론자나 진화론자나 아직까지도 풀 수 없는 어려움이다.

어떤 경우는 실제 내용을 거꾸로 이해한 부분도 있다. 그 문제점의 예를 들자면 양 교수는 K-Ar(칼륨-아르곤) 연대측정을 언급할 때 용암이 굳은 후에 아르곤 가스가 빠져나갔을 가능성만 강조하며 오랜 지구를 주장한다(p. 387).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다. 지질학자들은 굳은 후에 아르곤이 빠져나가는 가능성보다 용암이 굳기 전에 용암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남아있는 아르곤을 훨씬 심각한 문제로 여긴다. 이를 ‘초과 아르곤 (excess Ar)’이라고 부른다. K-Ar 연대 측정법은 남아있는 아르곤의 양이 많으면 오래 된 것이고, 그 양이 적으면 최근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이 초과 아르곤은 그 암석을 비정상적으로 오래되게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벧후3:6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이 초과 아르곤은 모든 용암에서 쉽게 관찰된다. 최근 화산폭발에 의해 굳은 용암 속에 언제나 아르곤 가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번 밝혀졌기 때문이다.

양 교수는 연대측정과 홍수 심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다. “그러나 대홍수설은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측정 결과와 양립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지구역사에서 단 한 차례의 대규모 홍수만 있었다는 대홍수론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존의 연대측정 결과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p. 470) 그러나 연대측정과 홍수 심판이 불일치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한쪽이 틀렸기 때문이다. 즉 연대측정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이다(이에 대하여는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다중격변론은 실제로 발생한 적이 없는 역사에 지질학적 증거들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해석들이 증거와 결코 조화롭지 못하다. 우리가 보고있는 수평으로 펼쳐진 엄청난 두께와 너비의 퇴적 지층은 수십억 년에 걸쳐 발생했다는 여러 번의 격변이 아닌, 창조 이래로 발생한 단 한 번의 격변적 홍수 심판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지게 한다. 만약에 그 마음에 수십억 년의 지질시대표를 버린다면 말이다. 다중격변론의 성경적 문제점과 그 위험성은 다음 호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공상과학 소설 RNA의 세계

왜 RNA의 우연한 출현이 화학진화의 긴 시나리오 중 한 부분으로 중요한 것일까? RNA는 구조적으로 DNA와 비슷하며, 유전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네 종류의 염기부호를 가진다. 또한, RNA는 자신과 닮은 RNA를 스스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며, 이러한 복제과정이 다른 촉매의 도움 없이도 가능하다. 이런 RNA의 자기 복제력과 효소 기능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맨 처음의 RNA만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다면, 그리고 RNA를 형성하는 재료들만 충분히 존재했다면, 돌연변이를 통해 다양한 RNA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면 단백질들에 대한 유전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RNA의 돌연변이가 무수히 반복되다가 DNA를 결합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인 DNA중합효소에 대한 정보까지 갖게 되었다고 가정한다. 결국 RNA 세계라는 것은 고도로 복잡한 정보 저장체제인 DNA가 어떻게 저절로 형성될 수 있었는지 이 난감한 문제를 풀어가는 돌파구로서 선결문제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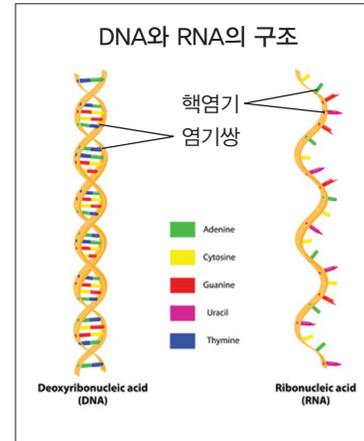
이러한 RNA의 세계를 거쳐가는 화학진화의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는 10학년 과학교과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아데닌과 시토신과 같은 염기와 리보스, 그리고 인산기가 결합하여 리보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데, 이것에 열을 가하면 스스로 모여서 RNA 단일 가닥 사슬을 형성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중략> 따라서 원시 지구에서 형성된 RNA가 필요에 따라 복잡한 화학 반응을 거쳐서 DNA로 거듭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

정말 자기복제력이 있는 RNA가 자연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 있었을까? 대답부터 말하자면, '아니오'이다. 일단, 자연에서 RNA를 구성하는 재료들이 저절로 합성되지 않는다. 다음, 그런 재료가 충분히 있다고 해도, 그 단순한 유기물들 중 오직 D-형(오른손형) 오탄당만 선별하여 50개 이상 연결시킨 뉴클레오타이드가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심지어 실험실에서조차 RNA를 합성해보려고 시도했을 때, 용액-건조-건조-용액-건조를 교체하며, 알칼리-산성-산성-알칼리성 순으로 맞추어야 하고, 온도는 실온-100도-(50-160도)-90도 등으로 조정하며, 공기가 없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자연계에는 매우 희박한 10종의 유기물과 무기물이 화학반응의 각 단계마다 정확히 나타나야 한다고 한다.^[2] 우주 그 어디에도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과 재료들을 각 단계에 맞춰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은 없다. 한마디로, 그것은 저절로 이루지는 과정이 아니다.

더군다나, 진화론자들의 염원대로 RNA가 DNA의 세계가 오도록 그 발판



이 될 수 있으려면, RNA가 유전 정보를 가질 뿐 아니라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DNA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생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RNA는 단 두 개의 아미노산조차 연결시키는 능력이 없다. 무엇을 말하는가? 설사 누군가 RNA 한 트럭을 아미노산이 충분히 많은 연못에 부어 넣었다해도 그 연못 안에서는 그 어떤 단백질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억 년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연못에서 DNA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제로이다.

마치 그러한 일이 과거 지구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단순한 유기물에서 단백질, RNA, DNA로의 진화스토리를 엮어가는 화학진화는 단지 상상을 통한 소설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NA가 필요하고, DNA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중합 효소인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RNA없이 DNA에 있는 정보가 단백질을 만들도록 제공될 수 없다. 이 세 가지는 각각으로서는 무능하며, 동시에 있어야만 생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누가 이 복잡한 생체분자들을 동시에 존재하게 했던 말인가?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리시는 ‘만물의 조성자’이다(렘10:16).

노회성 / 과학교사

[1] 안태인 외 11인(2011), 고등학교 과학, 금성출판사, p.123

[2] 생물의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김기환, 한국진화론실상연구회(2008), 125



창조과학 탐사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지난 10월 8-15일 8일간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에 불고 있는 유신론적 진화론의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을 공감했습니다. 가족이나 주위분들께 추천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창조과학탐사를 모집하는 곳이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입니다. 올해도 두 번째 참석하였고 이번이 총 아홉 번째입니다. 한국에서 인원이나 일정 때문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두란노 바이블칼리지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6년은 5월 19-16일, 10월 6-13일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세미나

지난 달 아래 교회에서 창조과학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10/17, 담임 목사 신승훈): 노아홍수, 지구의 나이, 진화의 반대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한 해에 두 번 하루씩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였습니다.

얼바인 베델교회(10/17, 담임 목사 김한요): 한어 중고등부에게 동성

애에 관하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부모님들까지도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총현선교회(10/20, 담임목사 민종기): 세계관 스쿨에서 '유신론적 진화론, 그 거센 바람'에 대하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유신론적 진화론자들과 그들의 주장에 대한 성경적, 과학적 문제점을 다루고 그 위험성까지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만 회장 한국 방문

이재만 회장은 지난 10월 28일부터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여러 미팅과 함께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한동대학교와 헤브론 원형학교(대표 김용희)뿐 아니라, 한국컴패션(대표 서정인), 아산병원, 국대떡볶이, 일산산성교회(담임목사 유희숙)





에서 세미나를 인도했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남은 일정이 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친 후에 대만, 일본, 홍콩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12월 1일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와 만남 가운데 주님의 인도와 이재만 회장의 건강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과학학교

제 19기 중부 창조과학학교가 시카고 한미장로교회(담임 주용성 목사)에서 지난 9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10주간 진행되었습니다. 매 주 수요일 저녁 이동용 박사가 세미나를 인도하였으며, 성경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매 시간 수많은 말씀의 증거들을 보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본 교회를 은퇴하시고 선교에 전념하시는 이종형 목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크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번 19기에도 귀하신 분들을 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실감하였는데, 특별히 열심히 기도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간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빅뱅은 세속 과학자들이 우주의 시작을 설명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우주가 한 점(singularity)에서 시작됐다는 개념인데, 모든 물질과 은하계가 이 한 점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우주 자체도 그 점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점이 급격히 확장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했고 그런 에너지 중 일부는 물질로 형성돼서 수소와 헬륨 가스가 되고 별과 은하계가 만들어졌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이 세속적 개념의 우주의 기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대한 폭발로 우연하게 시작됐다면 주변에서 엄청난 혼돈이 목격됐을 겁니다. 오늘날 목격 가능한 가장 강력한 자연현상을 떠올려보세요.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같은 현상 말이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파괴와 무질서만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주는 질서와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태양이란 예가 있습니다.

중력이 태양의 수소를 모아주면서

강력한 압력을 생성해서 태양핵에 핵융합을 발생시킵니다.

거기서 수소 원자핵은 헬륨으로 융합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지구의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태양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스스로를 파괴할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이 유지시켜 주는 거죠.

태양의 고온은 압력을 생성해서 태양 가스층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중력의 힘이 이런 층을 다시 끌어들이니다.

이 두 가지 힘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적인 태양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이런 조화가

우주 속 수십억의 수십억 개의 별들이 불타게 하는 겁니다.

-Unlocking the mysteries of Genesis, 우주의 기원 중에서

역사적 이담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오래된 지구를 믿는 믿음은 엄청난 신학적 문제를 일으킨다. 창세기를 솔직하게 읽는다면 그것은 오래된 지구를 믿는 믿음과 명백한 긴장을 조성할 것이며,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동물들의 죽음과 고통에 관한 문제도 존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지구를 신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문제점이 심각하긴 하지만, 적어도 인간의 죽음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

기만 한다면(로마서 5:12-21) 용인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할 지 모른다. 이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만약 인간의 죽음이 정말로 죄에 대한 형벌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으로 오직 인간의 죄값을 치루실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가 실제로 범해지기 전에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은 아담의 범죄 이전에 일어났을 수 없다. 이것은 창세기를 자연스럽게 읽는다면 명백히 도달하게 되는 결론일 수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 참이기 위하여 논리적으로도 필요하다.

따라서, 인간의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기독교 교리이다. 만약 인간의 죽음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면, 복음 그 자체는 논리적 결함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피의 대속은, 죄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개념을 떠나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창세기 2:15-17). 이것은 너무도 명백하여서 심지어 오래된 지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아담이 실제로 최초의 진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인정한다.

아담을 실존 인물이라고 인정하는 오래된 지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타협안이 대속에 관한 교리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죽음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미 파산한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오래된 지구를 믿



음과 동시에 아담이 첫번째 사람이라고 믿기 위해서는, 아담과 이브 이전에 존재했다고 하는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소위 “호미니드 (hominids)”의 인성을 부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대인들이 진정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는 매우 강력하다. 심지어 진화론자들도 네안데르탈인들이 언어와 도구를 사용했고, 죽은 사람들을 신중하게 묻었으며, 심지어 “현대인”들과 교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네안데르탈인들은 정교한 악기를 만들었으며, 별자리를 이용해 원거리 항해를 했고, 동물의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었다 (역자 주)). 물론 그들이 인간과 교배를 했다면, 그들 또한 정의상 인간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네안데르탈인들은 추운 지방에 살았고, 따라서 옷을 입어야만 했으며, 성적으로도 옷은 인간의 타락 이후 나체를 가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창세기 3:21). 따라서, 심지어 어떤 진화론자들마저 호모 사피엔스의 “아종”으로 분류하는 네안데르탈인들이 진정한 인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오래된 지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네안데르탈인들이 아



담 이전에 존재했다고 하는 가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아담이 실존인물이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죽음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래된 지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재앙적인 신학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줄 유일한 것은 네안데르탈인들이 진정한 인간이었음을 부인하는 것 뿐이다. 이러한 방어할 수 없는 입장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래된 지구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중 몇몇이 아담이 실제 존재한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네안데르탈인들이 실제로 바벨 이후의 노아의 후손들이라면, 이러한 신학적 수수께끼는 순식간에 풀리게 된다. 그리고 지구가 오래되었으며 네안데르탈인들이 아담 이전에 존재했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자료 자체가 아닌, 자료를 바라보는 오래된 지구를 믿는 세속적 해석일 뿐이다. 세속적 과학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거 자체는 젊은 세상, 오래되지 않은 인류, 그리고 전 지구적 노아의 홍수의 실제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학적, 과학적 자료 모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적으로 만족할 만한 방법을 제공한다.

Jake Hebert, Ph.D. 2015. A Historical Adam Is Not Enough. Acts & Facts, 44 (8).
번역: 이충현

창조과학탐사

간증 / 한동대학교수

7/13-7/19, 2015



첫 날 강의하셨던 내용 중 '저탁류'를 설명하시던 순간 제 눈이 커지면서 시야가 갑자기 확 넓어지고 받아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 박애라 <포항침례교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현장을 돌아보며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음 세대에 말씀의 바톤을 넘기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 박진환/박의숙 <한동대학교/포항기쁨의교회>

2007년 너무도 가슴뭉치며 읽었던 창조과학 콘서트.. 그대부터 꿈꿔왔던 그랜드 캐년 탐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 류선희 <부산리정동산교회>

한동대에서 처음으로 창조과학탐사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과학탐사 프로그램이 세계관을 바꾸고 진화론에 갇힌 패러다임에서 해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서병선 <한동대학교>

앞으로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성경의 무오함에 대한 확신의 전도사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느낌으로 성경을 다시 읽을 의욕이 생겼습니다.

- 배건웅 <한동대학교/ 포항충진교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여행이었습니다.

- 최한나 <온누리교회>

하나님의 창조와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과 빙하기의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며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 최형욱 <상하이연합교회>

유신론적 진화론의 생각을 갖고 있던 제가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 김경미 <한동대학교/포항충진교회>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증은 Homepage(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12/5 창조과학그룹스터디 (노회성)
- 12/13 창조과학세미나 (LA온누리교회), 노회성
- 12/20 창조과학세미나 (샌디에고한빛교회), 이재만
- 12/21 Anza Borrego탐사 (한빛교회), 이재만
- 12/28-30 Dong San Baptist Church, Denver (김선옥), CO.

- 1/1-2/17 제 7 차ITCM 훈련
- 1/4-7 창조과학탐사 (17차 유학생), 이재만
- 1/26-29 창조과학탐사 (대구참좋은교회), 이재만
- 2/21-27 목포사랑의교회 (이재만), 한국
- 3/5-6 성광교회 (이재만), 한국
- 3/21-27 창조과학탐사 (연합팀), 이재만
- 3/28-31 창조과학탐사 (남가주노회), 이재만

- 4/2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 4/5-12 창조과학탐사 (서울충신교회), 이재만
- 4/13-19 창조과학탐사 (안양석수교회), 이재만
- 4/20-30 창조과학탐사 (빛나교회), 이재만

- 5/2-10 창조과학탐사 (서울드림교회), 이재만
- 5/13-19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 5/19-26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 5/31-6/8 창조과학탐사 (전주동은교회), 이재만
- 6/8-13 창조과학탐사 (합동신학원교수),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